을 보면 우선 그 자의적 의미는, 르우벤이 실제로 아버지의 소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말하며, 두 번째 해석으로는 르우벤은 인간의 도덕법을 위반한 패륜자라는 것이고, 세 번째 해석으로는 르우벤을 하느님의 장자로 해석하고 그의 범죄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야훼를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가 바로 영적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알레고리적 영적 해석권은 성서의 역사적 연구에 바탕을 두지 않고 교의적(教義的)·사변적(思辨的) 근거 위에서 해석된 결과입니다. 거기에는 성서 자체가 본래 의도하는 바와는 달리 교회의 질서를 지키거나 신자들의 생활을 통솔하려는 지배의지(支配意志)가 앞서서 성서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영적인 해석'이 판을 친 중세기의 평신도들은 자기의 판단력을 완전 제거할 때만이 교회인(教會人)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양상은 말 못하는 어린애가 그 어머니가 먹여주는 것을 받아먹을 수밖에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니, 말 못하는 어린아이도 쓰면 뱉어내어 싫은 것을 거부할 권한이 있었으나 당시 민중들에게는 그런 권한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3. 성서의 전승을 위한 노력들

이제 그 오래 된 글들이 어떻게 우리 손에까지 전승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역사와 해석』이라는 책 머리에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고전들이 우리 손에까지 전승된 사실이 얼마나 신비하고 경이스러운 일인가를 말했습니다. 그것들이 살아남은 데는 무엇보다도 까마득한

그 옛날에 쓴 글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삶을 밝혀주고 대변해 줄 뿐만 아니라 의지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서도 그런 고전 중의 하나입니다. 그 안에 실린 글들은 적어도 1,000년 이상의 오랜 간격을 두고 씌어진 것들이 한 책으로 묶여진 것들입니다.

다른 고전과 비교해서 이 책이 가진 특성은 중국이나 인도 또는 희랍과 같이 한때 세계적 대국(大國)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큰 문화권을 형성한 찬란한 품(요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중동 한구석의 조그마한 나라로서 약 100년간의 왕국시대 외에는 언제나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히고 분단되었다가 마침내는 속국(屬國)이 되어 주권국가로서는 실오라기 같은 목숨을 이어간 보잘것없는 한 민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보존되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고전들도 그렇지만 성서도 원본(原本)은 이 세상에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로는 그의 편저 끝에, "내가 친필로 쓴다"는 말을 첨부했지만, 이것은 바로 친필로 쓴 글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단 한 자의 글도 세상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옮겼는데, 그것도 그의 첫 제자 중의 어느 누가 쓴 것이 아니고 그 세대를 넘어 그 다음 세대의 이름 모를 사람의 손으로 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명(無名)의 필자들이 직접 쓴 글들은 하나도 세상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그 원본을 베낀 것(寫本)들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한 1,500개입니다. 그러나 오래 된 것일수록 원래의 모습이 보존되지 않고 중간중간 잘려나간 데도 많고, 그 묵(墨)의 색이 바래서 알아볼 수 없는 것도 많으며, 어느 부분만 파편으로 남아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본들 역시 내용에 차이가 많습니다. 이 사본들을 학자들이 오랜 세월을 비교해가면서 원모습을

살려냈지만 지금까지도 사본간에 다른 구절들 중 어느 것이 본래의 것인지를 가늠하기 어려워 그중의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됐음' 하고 주(註)를 달아 세상에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보수파에서 성서의 글자 하나하나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씌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사수하려고 하지만, 설령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렇게 씌어진 원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서를 쓸 때에나 그것을 베낄 때에 쓴 재료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파피루스'(Papyrus)라고 하는 갈대잎을 종이처럼 사용했고 또 하나는 '페르가멘트'(Pergament)라고 하는데 이것은 양이나 염소 혹은 다른 짐승의 가죽으로 된 것입니다. 바울로는 페르가멘트를 사용한 듯합니다. 그는 그것을 '두루마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책처럼 묶을 수도 없어 둘둘 말아서 보관하거나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본들은 큰 글자(大文字)로 썼고 글자 사이에 아무런 간격 없이 썼습니다. 그러니 두루마리 하나의 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 우리 손에 파편으로 남아 있는 파피루스 사본으로서 제일 오래 된 것은 4세기초의 것이고, 짐승가죽으로 된 사본(페르가멘트)은 4세기에서 16세기의 것까지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색이 바래서 화학적 방법을 통해 재생시켜 읽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세기에 씌어진 가장 오랜 사본은 에집트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은 로마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구약의 일부는 없고, 신약도 완전하지 못했는데 1844년에서 1859년 사이에 그 사본의 다른 부분이 발견되어 그것을 보완하여 일단 모양이 갖추어진 책이 되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해서 러시아 동방교회(정교회)의 손에 갔던 것인데, 러시아가 그것을 10만 파운드에 영국에 팔아서 지금 런던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그 사본들이 전승된 한 예인데, 모든

사본들이 그렇게 험난한 경로를 통해 여기저기에 보존되어왔던 것입니다.

구약은 본래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씌어졌고 신약은 몽땅 희랍 말 중에 민중들이 쓰는 '코이네'(koine) 희랍어로 씌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성서의 운명을 잘 드러냅니다. 신구약을 한 책으로 묶는 데도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희랍어로 되어 있다는 것은 성서가 이루어지는 역사적 배경이 얼마나 격변했는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한편 일찍부터 이런 원본을 번역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70인이 모여서 구약을 희랍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것을 '70인'이라는 뜻인 '셉투아긴타'(Septuaginta)라고 하는데, 오경(五經)만 번역된 것은 주전 2~3세기이며 전체 번역은 주후 2세기에 완료되었습니다. 그외에 유명한 것은 시리아 말로 번역된 것입니다. 이 번역은 대체로 2세기말에서 4세기초 사이에 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교가 로마제국에 공인된 종교로 수용됨으로써 라틴어 번역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라틴어 번역을 불가타(Vulgata)라고 하는데, 그것은 4세기말에 이루어진 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친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번역은 에집트 민중의 언어인 콥틱(Koptic) 번역입니다. 이 번역은 에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인 울필라(Ulfila)가 번역했다고 전해지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4세기 중간쯤에 된 것입니다. 이 사본은 참으로 복잡한 경로를 거쳤습니다. 이 사본은 왕실에서 보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대부분 몹시 화려한 은(銀)가루로 씌어졌습니다. 9세기에는 지금의 네덜란드의 영토인 루어(Ruhr) 지방의 어떤 수도원에 보존되어 있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1600년에 체코의 프라하로 넘어갔으며, 다시 1648년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으로 이전되었다가, 1655년에 또다시 네덜란드

로 되돌아왔고, 1699년에 또다시 스웨덴의 손에 넘어가서 지금은 웁살라대학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운명도 기구하지만 얼마나 나라마다 다투어서 그것을 국보처럼 자기들의 것으로 소장하려고 애를 썼나 하는 것이 엿보입니다. 그런 사실은 바로 그 사본 중에 10장이 한 영국 사람에게 도난당했다는 사실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이러한 사본의 이동과정과 도난사건들은 마치 최근에 세계적인 예술작품이 사상 최고의 값에 국경과 대륙을 넘나드는 것과 흡사합니다. 이외에도 번역된 사본들이 많지만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에 뜻을 가지고 사제계급이 독점한 성서를 민중에게 돌리자는 번역운동이 있었습니다.

12세기의 유럽은 산업도시가 한창 발달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때 서구는 근대화로 접어들어 이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프랑스 리용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민중이 주체가 된 그리스도교 개혁운동이 번져나갔습니다. 이 운동에 감동된, 리용의 부유한 한 시민인 '발데시우스'가 회심의 결단을 내려 이 운동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민중의 편에 서서 그의 모든 재산을 그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성서를 리용 지방의 사투리로 번역하여 돌림으로써 타오르는 불길에 석유를 뿌리는 것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발덴저운동'이라고 했는데, 저들은 극심한 박해를 견디지 못해 그 일부가 이탈리아로 잠입해 들어갔습니다. 저들은 지금도 로마를 위시해서 100여 개의 교회를 유지하고 있으며 스스로 종교개혁의 선봉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대로 희랍어로 된 신약성서의 사본들은 사필과정(寫筆過程)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된 것이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이 원본에 충실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16세기

초까지 각 교회가 손에 입수된 사본들을 아무 비판 없이 읽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 이전 에라스무스(Erasmus)가 여러 사본들을 대조하면서 원본의 모습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1516년의 일입니다. 따라서 에라스무스는 원문비판(Text Critic)의 시조(始祖)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얘기될 마르틴 루터의 성서번역은 바로 이 에라스무스가 정리해낸 희랍어성서에 의존한 것입니다.

4. 종교개혁시대와 성서해석

이미 중세기에 이와 같은 종교적 강권에 저항하여 개혁운동을 꾀한 여러 선각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마침내 루터와 칼뱅을 통해서 정면으로 로마 가톨릭교회에 대항하여 그리스도교 개혁에 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우리의 관심사는 역시 성서해석의 문제입니다.

루터는 어거스틴을 숭상하는 수도사였습니다. 젊은 루터에게 기존 교회에 대한 회의를 가져다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으나 그중에 두 가지만 예를 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는 이른바 면죄부(免罪符) 판매사건입니다. 로마교회는 지금의 베드로성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세계교회에서 모금을 했는데 능률적인 모금방법으로 교회가 발행하는 면죄부를 많이 사면 사는 것만큼 사죄(赦罪)가 보장된다고 선전하면서 기금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사상을 돈으로 파는 행위였습니다. 젊은 수도사 루터에게는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사건을 극도로 모독하는, 교회타락의 극치로 보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로마를 방문했을 때, 높은 데 세워진 교회로 오르